



보도 시점 2026. 8. 9.(일) 11:00
8. 10.(월) 조간

배포 2026. 8. 7.(금) 16:00

‘친환경농업’ 생산성 높인다..농업인·연구자 협의체 출범

- 농촌진흥청, 10일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 발족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이행 위해 12개 작목 우수농, 청년농, 연구자 60여 명 참여
- 14일까지 의견 수렴 위한 릴레이 토론회도 열고 2027년 신규 연구사업 구체화

※ 일시 및 장소: 2026. 8. 10.(월)~14.(금),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 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0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를 출범하고, 14일까지 작목별 연속 토론회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친환경농업 현장의 기술 수요를 연구개발에 반영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6월, 환경농업협회와 연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협의체에는 벼, 양파, 배추, 무, 사과, 배, 콩, 말차, 딸기, 양봉, 양계, 화훼 등 12개 작목의 선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연구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운영은 배추·무와 사과·배를 각각 하나의 협의 단위로 묶어 모두 10개 작목 협의 단위로 진행한다.

조직은 공공급식 생산 기반 확충 지원반, 고부가가치 생산전략 지원반, 신규 인증 품목 지원반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분과는 안정 생산과 노동력 절감, 환경 적응, 가공·수출 연계, 신규 인증 기준 마련 등 현장의 과제를 발굴한다.

릴레이 토론회는 10일 벼를 시작으로 품목별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2027년 친환경농업 신규 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 장철이 과장은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는 친환경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노동시간 단축, 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 발족 및 릴레이 토론회

담당 부서	(총괄)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	책임자	과 장	장철이 (063-238-2551)
		담당자	연구관	이슬비 (063-238-257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행사 개요

- 목 적: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 발족 및 신규과제 구체화 방안 논의

분반명	분반별 작목	분반 담당자
1분반: 공공급식 생산 기반 확충지원반	벼, 양파, 배추무, 사과배	홍성준 연구관
2분반: 고부가가치 생산전략 지원반	콩, 밀차, 딸기	한은정 연구사
3분반: 신규인증 품목지원반	양봉, 양계, 화훼	홍선옥 연구사

- 일 시: '26. 8. 10.(월) ~ 8.14(금)

* 기간내 품목별 협의체 운영

- 참석자: 협의체 구성원

* 품목별 친환경 협회 추천 선도농 및 청년농, 해당 품목별 소속기관 등 연구자로 구성

□ 주요 내용

- 협의체 소개 및 신규사업 구체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 '27년 친환경농업 신규사업[#] 추진방향 공유

[#] 팜테크 기반 친환경 농업 생산 수익 혁신을 위한 전주기 기술 패키징 리빙랩

- 품목별(10개) 신규사업 구체화 등 의견 수렴

[#] 분반 및 품목별 해당 장소에서 진행

□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현장맞춤형 기술수요 발굴 및 신규사업 구체화

[붙임] 협의체 분과별 역할 및 구성

